

## 후보직 출마에 대한 소견

안녕하십니까! 제36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후보 김옥수입니다.

2015년, 마침내 우리 간호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51년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간호관련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2년 동안 간호협회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간호사가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새로운 간호패러다임으로 재편하고 간호의 질 향상과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의료법에는 담아내지 못한 전문간호사 법적 역할 마련을 통해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 제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활성화로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간호를 실현하겠습니다.

1969년에 건립된 협회 회관은 이제 협회의 위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간호사 신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정책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존함으로써 간호 미래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지침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중심으로 협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에 34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룬 기적이 계속되고 완성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